

전북대 박세은 대학원생, 지구물리학회 우수 발표상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세은 대학원생(석사과정, 지도교수 오주원)이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박세은 대학원생은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시추공 기반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실증 예비연구 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에서 저장층 내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로, 캐나다 알버타주의 소규모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수행되는 분포형 광섬유 센서(DAS) 4차원 모니터링 실증을 위한 예비 연구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CREWES 연구팀과 공동 진행했으며, 추후에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소규모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확보한 실제 4차원 DAS 모니터링 탐사자료에 대해 실증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박세은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을 추후 국내에서 추진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 모니터링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인재양성이 지역의 경쟁력”

수병원 이병호 원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1억원 쾌척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이병호 수병원 원장이 전주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성금을 후원했다.

전주인재육성 장학후원금 전달식이 16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호 수병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장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원장은 지역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장학기금 1억 원을 후원했다.

이병호 원장은 “별소 인재양성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전주 수병원을 운영해온 이병호 원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호남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제의료 협력단(PMCI)에 소속돼 네팔과 예멘, 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쳐 오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0여 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써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인재육성에 항상 노력해주신 이병호 원장님께 감사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인



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출원기관인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형식선 지원 장학금 지원 △성인문해 우수교육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의 학문탐구 의욕과 애학심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순창군의회, 2023년 제1기 순창학생의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가 지난 15일 관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하는 2023년 제1기 순창학생의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0일 순창학생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오수환 위원장의 주재로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에서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제1기 순창학생의회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명 등 관내 9개 학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의원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학생의회 인건을 상징 처리하면서 정기회의도 마치는 등 의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명환 케이엔알시스템 대표 고희사랑기부금 기탁

무주군은 16일 (주)케이엔알시스템 김명환 대표가 고희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케이엔알시스템은 무주군에서 조성 중인 태권브이랜드의 핵심시설 태권브이 로봇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로 태권브이 로봇의 설계부터 모든 과업을 수행한다.

김명환 대표는 “무주군 관광활성화의 주역이 될 태권브이 로봇 제작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고희사랑기부금을 통해 무주지역 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게 돼 흐뭇하다”라며 “앞으로 태권브이 상지 무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1천만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는 명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농업인 안전365캠페인 챌린지 동참

최훈식 장수군수는 16일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은 농업인 안전보험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농작업 사고 발생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실천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업 작업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농업인 안전 365,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업인 안전 캠페인 참여를 홍보했다.



정덕교 장수경찰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최훈식 장수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전성성 진안군수와 정영선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을 추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기전대, 예비 직업인 현장실습 선사식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15일 교내 오르캠홀에서 2023년도 예비 직업인 현장실습 선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지인병원, 재활전문주간보호센터, 전북경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산업체 인사 및 9개 학과 교수진과 실습학생 등 총 171명이 참석했다.

현장실습 선사식은 학생들이 본격적인 실습에 나서기 전, 해당 전공의 전문가로부터 가치관을 새기고 책임과 소명을 다지는 자리이자 안전한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배움의 자리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한국평생교육사협회,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15일 종합행정동 회의실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이재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부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장 평생교육원장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재주 회장, 유인숙 부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및 운영, 평생교육 공동사업 발굴,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과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미니채용박람회 개최

남원여성새일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6일 오후 시 평생학습관 1층에서 여성구직자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미니채용박람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시 일하는 기쁨’ 슬로건으로 기획되었으며, 현장 면접을 위한 기업채용 부스 구직상담 및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을 위한 취업 지원 부스 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고용복지) 홍보지원 부스 시식회 및 노무 상담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고용복지와 협력해 살림노동복지센터 등 4개 구인 업체를 발굴, 현장에서 구직자와 소통하며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부대 행사 부스는 올해 직업교육훈련 ‘수제도시락 전문가’ 과정의 훈련생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식 코너를 운영, 훈련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시식회 부스를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무사를 섭외, 대면 노무 상담을 진행해 여성의 취업 과정에서 겪는 노무 문제와 입사 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었다.

지양군 센터장(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장애인 가구 밑반찬 나눔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3일 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정성을 가득 담은 밑반찬을 장애인 가정 2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반찬 나눔은 남원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로 남원농협 고희주부 회원들과 함께 만든 밑반찬 3종 세트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남원농협 반찬나눔은 상·하반기 어려운 이웃 및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밑반찬 및 김치 등을 만들어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행사로,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취약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경로당 ‘튼튼혈관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형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튼튼혈관 건강교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읍·면 경로당 총 16개소에서 운영하는 4회기 프로그램이며, 현재까지 7개소에서 운영을 마쳤고 6월 19일부터는 주천면 하송마을 경로당이 참여 예정이다.

운영내용은 기초검사(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교육, 중풍 및 치매예방교육, 건강생활실천교육(구강관리, 영양관리, 금연), 건강체조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16일 무주군 실천면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 어르신 댁을 찾아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펼쳤다.

대상 농가는 ‘농업인 행복콜센터(☎1522-5000)’를 통해 사연을 접수해 실시 됐고, NH현장봉사단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고통을 해결해드렸다.

김범석 지부장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의 조합원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부안축협, 농업인 현장지원 일손돕기 실시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시중)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전포(58)씨 농가를 찾아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부안축협 김선봉 상임이사와 여성축산인모임 회원,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1,500여 평의 노지에서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선 복분자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전국농 농가는 “높은 인건비를 주어도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애만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축협 직원들이 일손을 내어 주어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선봉 상임이사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현장지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범식 기자

남원시 도동동행복복지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남원시 도동동행복복지센터(동장 김윤자)는 지난 15일, 동 재능기부 봉사자들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동 직원들과 7명의 재능기부자들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은 장애인 수급자 부부와 딸이 거주하는 가정으로, 노후 된 집 천장의 물 흐른 자국, 곳곳의 곰팡이 등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정비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악취로 도움이 시급한 작은 집이었다.

이날 봉사에서는 도배, 장판 교체, 욕실 개진 수납장과 전기 교체, 베란다와 문틀 페인트칠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